

# 위기의 총무로, 이들 있음에... 신인 여배우 맹활약



송지효



서우

‘과속 스캔들’ ‘미쓰 홍당무’ 등 최근의 흥행작과 평단에서 찬사를 받았던 작품에서 신인 여배우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정도연·문소리·손예진 등 기존 여배우들의 뒤를 잇는 이들의 출연은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주고 있다.

최근 600만명을 돌파한 ‘과속 스캔들’은 두 명의 여배우를 주목하게 만든 작품이다. 먼저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은 미혼모 황정남 역을 맡은 박보영. SBS 드라마 ‘왕과 나’에서 구혜선의 아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찍은 박보영은 지난해 김수교가 주연을 맡은 ‘올해와 IT’, 진구와 호흡을 맞춘 ‘초감각 커피’에 출연한 후 세번째 작품 ‘과속 스캔들’로 대박을 터뜨렸다.

‘과속 스캔들’ 흥행의 일등공신인 아역 배우 왕석현과 최적 호흡을 맞추며 극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박보영은 특히 베테랑 배우 차태현에 밀리지 않는 당찬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과속 스캔들’에서 차태현과 소박한 러브라인을 만들어가는 유치원 교사 역의 황우슬혜는 출연 분량이 그리 많지 않지만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연극배우 출신인 황우슬혜는 지난해 평단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미쓰 홍당무’에서 주인공 공효진의 연적인 ‘내소 백단’의 러시아 교사 역을 맡아 열연했다.

황우슬혜는 그의 진가를 발견한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바위’에도 출연하는 등 필모그래피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미쓰 홍당무’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또 한명의 신인 배우 서우는 지난해 각종 영화제 신인상을 독식하며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아이스크림 ‘옥매가메’ CF에서 우스꽝스런 춤을 추며 등장한 서우는 장진 감독의 영화 ‘아들’에서 주인공 류학환의 여자 친구 역

을 맡으며 데뷔했다.

강한 인상을 남긴 영화는 역시 ‘미쓰 홍당무’. 주근깨 투성이의 얼굴에 4차원의 정신 세계를 가진 ‘진교 왕따’ 역할을 멋지게 소화해낸 서우는 지난해 열린 디렉터스 컷,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대한민국영화대상 시상식에서 잇따라 신인상을 수상했다.

서우는 올해 역시 드라마와 영화에서 중흥무진 활약을 예고 중이다. 서우는 제주도 에 모인 네 청춘남녀의 글로벌 로망스를 소재로 한 트렌디 사극 ‘탐나는도다’에서 여주인공인 영풍발랄 해녀 ‘버진’으로 출연하며 ‘질투는 나의 힘’의 박찬욱 감독이 매가폰을 잡은 ‘과주’에서는 이선균과 애절한 멜로 연기를 선보인다.

황우슬혜를 사랑하는 처제 ‘최은모’역 맡은 서우는 이 작품에서 중학생부터 20대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외모와 심리적인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할 계획이다.

박보영·서우·황우슬혜 처럼 완전한 새내기 배우는 아니지만 특별한 대표작이 없었던 송지효는 ‘쌍화점’을 통해 흥행배우로 거듭났다.

지난 2003년 ‘여고괴담 3: 여우계단’을 통해 데뷔한 송지효는 고수, 임창정 등 스타급 배우들과 ‘썸’, ‘씩씩시공’ 등을 촬영하고 드라마 ‘궁’과 ‘주공’에도 출연했지만 일부 작품의 경우 미스 캐스팅 논란에 휩싸이는 등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고려왕과 그가 사랑하는 효유무사, 효유무사를 사랑하는 왕후의 엇갈린 사랑을 그린 ‘쌍화점’에서 송지효는 조인성과 강도높은 베드신을 소화해 낸 데 있어 깊은 내면 연기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보영

박보영, ‘과속 스캔들’ 대박 이끌어  
황우슬혜, 박찬욱 감독 차기작 출연  
서우, 작년 각종 영화제 신인상 독식  
송지효, ‘쌍화점’서 흥행 배우 거듭나



황우슬혜



‘보르도의 고아’

## 스페인 영화제

21~28일까지 광주극장  
사우라 대표작 8편 방영

광주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스페인 영화를 한자리에 모은 스페인 영화제가 오는 21~28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네마테크 영화로 세상보기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피의 결혼식’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스페인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의 대표작 8편을 만날 수 있다.

눈에 띄는 작품은 예술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다. 스페인의 위대한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의 예술과 사랑을 그린 ‘보르도의 고아’, 스페인 출신 음악가 알베니즈의 모음곡 ‘이베리아’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라이브 영화 ‘이베리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까지 올랐던 ‘빙고’ 등이 눈길을 끈다.

또 9살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최고의 성장영화 ‘까마귀 기르기’, 감독의 ‘플라멩코 3부작’으로 불리는 ‘마법사를 사랑하라’, 스페인 내란을 배경으로 예술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고야 영화제 13개 부문 수상작 ‘아, 카르멜라’ 등도 놓치면 아까운 작품이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까마귀 기르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40 (062) 227-9970

###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뉴힐앞편 2층)

**건물**  
▶ 139년 11월 15일 10층 1000㎡ 건물  
▶ 139년 11월 15일 10층 1000㎡ 건물  
▶ 139년 11월 15일 10층 1000㎡ 건물

**땅**  
▶ 139년 11월 15일 10층 1000㎡ 건물  
▶ 139년 11월 15일 10층 1000㎡ 건물

###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 수원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 수원지구 333-1(경의선경사) 60㎡ 대문 앞 상입장지, 300㎡  
▶ 수원지구 333-1(경의선경사) 60㎡ 대문 앞 상입장지, 300㎡

### 正心 正視 正行

☎ 명당 공인중개사 062)431-2834. (H.P) 010-6460-2834

**추천 물건**  
▶ 정성 백암사 인근 식당 및 호텔 대 12,845㎡ 2층 68㎡ 매가 2억 9,000만  
▶ 보성읍 소재 수유정 민박집 및 최 고의 전원주택 부대 가 전방경관 최고의 자리.

### 명성공인중개사

016-611-3424 011-625-0510

호남취재의 신도시 1일 유동인구 30만명 모아파트·우미아파트 앞 3면 도로점

**1층 330㎡ 분할가능**  
편의점/아동통신/약국/안경점/호프전문점/짬뽕점포와 보도블록 300㎡ 있음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 다우공인중개사

☎ 523-8114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 360㎡/건 841㎡ (지상 4층)/12m 도로변 코너/용 5억 6천만/보 2억 3천 800만원/매가 12억 7천만

### 대인동삼일부동산

☎ (02)23-1140, 0210-821-8222 (중구 동대문로 114-1, 대인동 소재 신촌역 1번 출구)

##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거나 임대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권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상 분양 및 임대실績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을 팔거나 임대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